

일 주 문

법계장학금 전달
청도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은 3월 2일 운문사에서 법계장학회 장학금으로 7명에게 각 300만원씩을 전달했다.

논산 호국연무사 수계법회
양산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3월 21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훈련병 3000여명을 대상으로 수계 법회를 봉행한다.

광덕 스님 16주기 추모법회
서울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은 3월 2일 불광사 대웅전에서 광덕스님 16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사 기보교육성 모집
서울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은 3월 14일까지 조계사 기보교육 87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수강료 8만원. (02)768-8580

금강불교대학 졸업식 봉행
부산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은 2월 28일 삼광사 지관전에서 금강불교대학 졸업식을 열고, 불교학과 14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명상상담대학 1기 입학식
분당 대광사 명상상담대학 학장 월도 스님은 3월 1일 대광사 대불보전에서 105명의 신입생이 참여한 가운데 명상상담대학 1회 입학식을 개최했다.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입학식
대구 한국불교대학 회주 우학 스님은 3월 12일 대구큰절과, 국내 8개 도량, 중국 등 해외도량에서 신입생 입학식을 동시에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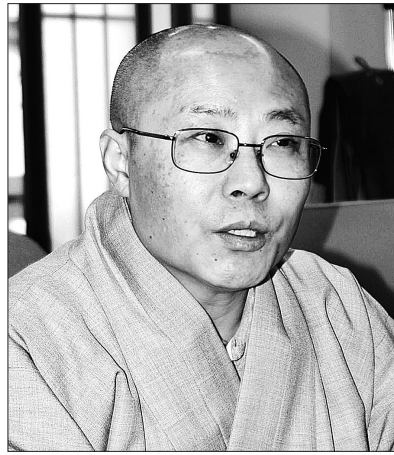
정각회 법당 이전 법회
강창일 국회 정각회 회장은 3월 6일 국회 본관 지하 1층에 새법당을 마련하고 이전법회를 개최했다.

군불총 창립 15주년 법회
김현집 국군불교총신도회 회장은 3월 13일 서울 국방부 육군회관 태극홀에서 국군불교총신도회 창립 15주년 기념법회를 연다.

영정사진 무료 촬영
전재우 한국불교사진협회 회장은 3월 15일 오후1시 불교TV 무상사에서 한국불교사진협회 회원들과 어르신 무료영정사진 촬영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불교 바르게 알기’ 학교서부터”

초중고 개편교과서 연구위원장 추대된 법안 스님



“불교를 구시대 유물로 보는 교과서 내 기술 바로잡겠다”
상반기까지 관련 연구 진행
관련 연구재단 · 발행사 전담

“불교는 한국의 민족문화를 그대로 담고 있는 역사·문화의 보고입니다. 지금의 한국을 있게 한 정신문화의 한 축이지만 현재 교과서에서는 불교를 박제화된 유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를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초중고 개편교과서 연구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추대된 법안 스님(사진)은 이 같이 포부를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초중고 개편교과서 연구위원회는 초중고 교과서에 나타난 불교 서술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전문기구로 종단적 대응 기구가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첫 회의를 갖고 위원장으로 법안 스님을 선임했다.

초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린 법안 스님은 교과서 내 불교 기술의 오류는 많이 바로 잡혔지만 민족 문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교는 한반도 도래 이후 문화와 역사, 사회, 정치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월계(越劫)를 무릅쓰고 민족을 위해 분연히 일어났던 호국불교에 대해서는 그 평가

가 박합니다. 신라부터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는 의승군들의 호국불교 정신은 현재 학생들에게도 많은 귀감이 될 수 있습니다. 교과서 내 불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다면 학생들은 불교를 구시대의 유물, 산중 사찰로만 생각합니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교과서에서부터 올바른 불교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우선 2016년판 인쇄용 교과서의 수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수정안을 만들어 교육부 산하 교과서연구재단과 발행사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교계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대거 참여했다. 주요 구성원으로는 이경훈 한국교사불자연합회장, 이학주 전국교법사 단장, 심익섭 전국교수불자연합회장, 김한기 은석초 교장, 김형중 동대부중 교감, 김화연 서울대자이고 교사, 서재영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 김정호 前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오는 3월 12일에는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들어간다. 이 같은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불교사회연구소와 불광 연구원은 오는 6월 ‘초중고 사회교과서의 불교서술 체제와 내용’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다.

법안 스님은 향후 교과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교사용 워크북을 제작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교과서 개정과 더불어 교사들이 불교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불교에 대한 추가적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워크북을 개발해 일선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불교를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불교 소장학자 육성에 힘쓸 것”

최종남 제 9대 불교학연구회 회장

2월 1일 제9대 불교학연구회 회장으로 선출된 최종남 학회장(중앙승가대 불교학부 교수·사진)은 학회가 열린 토론의 장 역할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학회장은 “전국 300여 교수들의 연구의 터미널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불교학을 함께 토론하는 문화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불교학연구회는 최근 디지털화에 힘써 학회지를 웹진 형식으로 보급하는 한편, 디지털 홈페이지 구축에서 나선바 있다. 최 학회장은 “시대변화와 함께 학회도 변화해야 한다”며 “전공과 연령의 벽을 넘어 많은 학자들이 함께 다양한 학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불교학연구회는 3월 28일 춘계논문발표회를 시작으로 5월 16일 춘계학술대회 등 2015년도 일정을 시작한다. 논문발표회는 기성학자들 위주가 아닌 소장학자들을 위한 자리로 마련된다.

최 학회장은 “특히 논평을 중시하고, 주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도록 하겠다”며 “이러한 학자들간의 교류가 곧 한국불교의 발전”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종남 학회장은 1987년 일본 사천왕사대 불교학과를 졸업 한 이후 1992년 독일 함부르크대학교 인도·문화역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1998년 동대학 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인도철학회 부회장, 한국불교학회 이사로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3·3·3 운동으로 조직 활성화”

대불련 총동문회 3월 1일 조직 발전 계획 선포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이하 대불련총동문회)가 3·3·3운동을 시작한다. 3·3·3운동은 대불련과 대불련총동문회, 사단법인 대불이 세 박자를 맞춰 연계활동을 펼치는 것을 말한다.

백효흠 대불련총동문회 회장은 3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3·3·3운동 시작을 선포했다.

백 회장은 “대불련과 대불련총동문회, 사단법인 대불 세 단체가 2017년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3000명 동문을 추가로 발굴하고 300개 대학에 동문지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불련총동문회는 창립 50주년을 준비하는 기념사업회 준비사업단을 발족하고, 50년사를 편찬하며, 대불련 발전위원회 모금 CMS 1000구좌를 개설해 적극적인 모연에 나설 계획이다. 백 회장은 “캠퍼스포교 종합 매뉴얼 구축 등 지원사업에도 3천만원을 책정하는 한편 동문회관 건립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제1회 선학승가대학원 졸업식



충북 보은 법주사(주지 현조)는 3월 4일 명월료에서 제1회 선학승가대학원 졸업식을 열고 1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날 법주사 조실 월서 스님은 법문에서 “졸업은 학문을 연구하는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며 “앞으로 금오선사의 업적을 끊임 없이 연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졸업식에서는 석재 스님이 대학원장상을, 동명 스님과 본허 스님이 표창장을 받았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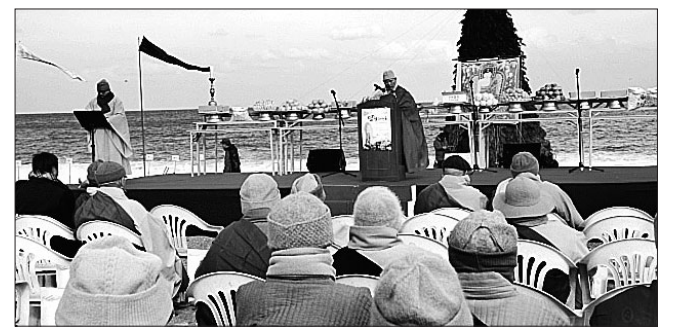
봉은사 금강경 독송 3년 대정진 입재



서울 봉은사(주지 원학)는 3월 5일 금강경 독송 3년 대정진에 입재했다. 이번 대정진에는 1600여 명이 접수했다. 봉은사는 이날 입재식에 이어 매달 음력 보름 오후 1시 산문을 닫고 ‘금강경’ 3독을 진행한다. 이 기간 동참불자들은 각 가정에서 매일 3독씩 총 3000독을 하게 된다. 봉은사는 금강경 독송 3년 대정진 기도를 상시접수한다. 가입비 10만원으로 매월 2만 원씩 동참금을 접수를 받는다. 동참자에게는 기도책 등이 제공된다. (02)3218-4800

노덕현 기자

대구 경북, 정월대보름 행사 다채



3월 5일 대구불교사원주지연합회가 경주 감포 나정 해수욕장에서 개최한 정월 대보름 맞이 방생대법회

민족 고유명절인 정월 대보름을 맞아 대구·경북 지역에서 관련 행사가 잇달아 열렸다. 3월 5일 대구불교사원주지연합회는 경주 감포 나정 해수욕장에서 방생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와 함께 대구 법왕사도 같은 날 경내에서 달집태우기와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영천 은해사도 스님들과 지역주민이 어우러진 웃음이 대회를 열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사) 한국불교 미륵종 임시총회결과 공고

(사) 한국불교 미륵종 정관 제2장 6조와 7조 3항의 규정 제4장 제18조 제19조 제20조 3항에 의하여 2월 13일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회의결과를 공포한다.

2014년도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 63명중 45명 참석과 서면위임장 7명을 포함한 52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어서 총회를 개최하였다.

안건상정사항

1. 중앙총의회 구성
2. 감찰원장 선출
3. 종정 불신임안
4. 법인이사 해임 건
5. 기타안건

1. 중앙총의회 구성은 지역안배와 재가승을 감안하여 구성하였다.
2. 감찰원장은 2명이 추천되어 경선결과 혜도스님이 선출 되었다.
3. 종정 불신임안은 오늘의 종단사태를 야기시킨 장본인인 무불 법상스님(인터넷 카페 항불회 회주)은 법인 이사들의 불법적인 결의로 종단 승려 17명이 제적 처분 되는 상황에서도 화의 또는 중재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을 하지 않았다. 또한 지금까지 유감표시도 없이 오히려 법인 이사들 편에 있는 스님이라 총회에 참석한 회원스님이 한 목소리로 종단의 최고 존엄의 어른스님으로 모실 수 없음을 발의 하여 만장일치로 불신임안이 통과 되었기에 이 시간 이후부터 무불법상스님은 더 이상의 본 종단의 중정이 아님을 천명한다.
4. 법인이사 해임건은 이번 사건을 유발시킨 불법적인 정관변경 사유를 들어 해임 발의에서 51명 찬성 1명 반대로 현 법인 이사들을 해임결결 하였음을 알린다.
5. 기타 해임건에서는 법인 이사들의 불법적인 결의로 제적된 17명 스님들의 제적처분사항은 복적이 아니라 원천 무효로 한다.

2015년 3월 4일

(사) 한국불교미륵종 총무원장대행 영빈